

重한 事前檢討를 進行하고 있다.

◎ 慶州 祇林寺 乾漆菩薩坐像의 調査

이 菩薩像은 一九六四年 十二月 指定이 決議되었던 바 그 直前인 同年 七月 改金되었던 事實이 뒤늦게 밝혀져 同人 秦弘燮이 現地에 出張하여 調査하였던 바 粗惡한 改金으로 價値의 損傷을 招來하였으며 臺座는 分離保管하여 指定當時의 原形이 變更되었다.

이 調査에서 밝혀진 바에 依하면 臺座에는 「弘治十四年 辛酉」云云의 墨書銘이 있었다고 한다.

◎ 光化門復元

大統領 指示에 依하여 中央廳 前面 光化門의 原位置에 同門을 復原하리라는 바 이 事業推進을 爲하여 推進委員會가 構成되리라고 한다.

◎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團總會 및 調査計劃

한국일보社가 主管하는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團에서는 지난 四日 下午 五時 한 국일보社會議室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調査團 發足以來 滿三年間의 業績檢討와 學術調査 報告書刊行 및 今番 冬季休暇를 利用한 各岳別 調査計劃 等を 協議하였는데 그 重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參加者 金庠基(團長) 金元龍、李基白、鄭永鎬、秦弘燮、崔淳雨、洪思俊、黃壽永、諸委員과

新聞社側에서 張基榮、劉文化部長、許記者 等 諸氏

二、決議事項

(1) 報告書 刊行 準備...前番 會議에서 決議한 內容을 再確認하되 原稿의 完成은 一九六八年 二月末로 할 것이며 執筆은 다음과 같이 進行한다.

◎ 文獻考察과 全岳의 概說——金庠基、李基白

◎ 東岳(吐含山)——金元龍、黃壽永

西岳(鷄龍山)——洪思俊、

南岳(智異山)——朴敬源、鄭永鎬

北岳(太白山)——秦弘燮、崔淳雨

(2) 踏查計劃

中岳(八公山)——金英夏、鄭永鎬

八公山地區(中岳)——十二月 八日—十八日(十日間)

吐含山地區(東岳)——十二月 十五日—二十五日(十日間)

太白山地區(北岳)——十二月 二十一日—三十一日(十日間)

智異山地區(南岳)——一九六八年 一月 二日—十四日(十二日間)

銅製 延祐元年銘 秤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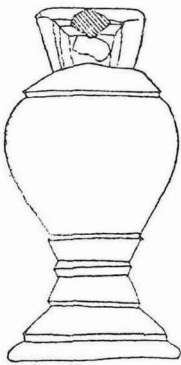
——第九卷 第一號 通卷九十號——

秦 弘 燮

古代 秤錘는 그 時代의 度量衡의 基準을 잡는데 重要한 根據가 되는 것이지만 比較的 小形에 屬하여 逸失의 危險度가 높을 뿐 아니라 時代의 判定도 正確을 期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秤錘로 推定되는 數三의 例가 있기는 하나 모두 이러한 缺點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最近 매우 注目되는 銅製 秤錘一點이 出現되어 形態에 있어 特異할 뿐 아니라 銘文이 있는 點은 매우 貴重하다고 할 것이다.

高九·八cm의 조그만 이 錘는 곧 地下에서 出土된 것 같지는 않고 相當한 期間傳世되어 온 듯 表面이 매끈매끈하다. 外形은 높직한 臺위에 寶珠形을 倒置하고 鈕가 달린 蓋形을 덮은 形態로서 이것이 擴大되면 石鍾形 浮屠의 類似한 形態가 될 것이다. 底面은 三段으로 만들어 截頭圓錐形을 만들고 그 위에 잘숙한 一段을 두고 上部가 넓어진 받침을 엮었다. 恰似 浮屠 基壇의 下臺, 竿石, 上臺의 形狀이다. 이 위에 얹힌 寶珠形은 밑이 좁고 위가 넓어 基臺의 허리에서 그대로 擴大되어 肩部에 이르렀다. 그 위에는 根部가 좁아진 方形 꼭지가 달리고 그 밑에 蓋形이 있어 身部 위를 덮은 것같은 形狀이



다。底徑 四·九 cm 身部 肩部 徑 四·八五 cm 小形이지만 安定된 外形을 가지고 있다。

身部 周圍에는 六行에 걸쳐 十五字 乃至 十六字의 銘文이 깊이 陰刻되어 있다。

樂亭縣

延祐元年

五

號

造二五斤

一

이 銘文으로 製作이 「延祐元年」임을 알 수 있으니 延祐는 元仁宗의 年號로 高麗 忠肅王 元年 西紀 一一一四年에 該當한다。三行의 一字는 二字分인지 一字인지 不明이고 四行의 「號」二字는 이러한 鍾을 여러개 만들어서 한개마다 號數를 記刻하려는 意圖가 있었는지 모르겠다。末行의 「一」의 「一」字는 字劃 不明이나 「甬」字로 보아야 할듯하다。 「甬」은 玉篇에 「量名斛也」라 있는 點으로 보아 짐작되는바이며 前行의 「二五斤」은 「一甬」과 함께 「二五斤 二斛」의 鍾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理解된다。지금 이 鍾의 重量은 一斤이니 비슷한 比例라고 생각된다。 다만 첫머리에 「樂亭縣」이 무슨 뜻인지는 後考를 기다리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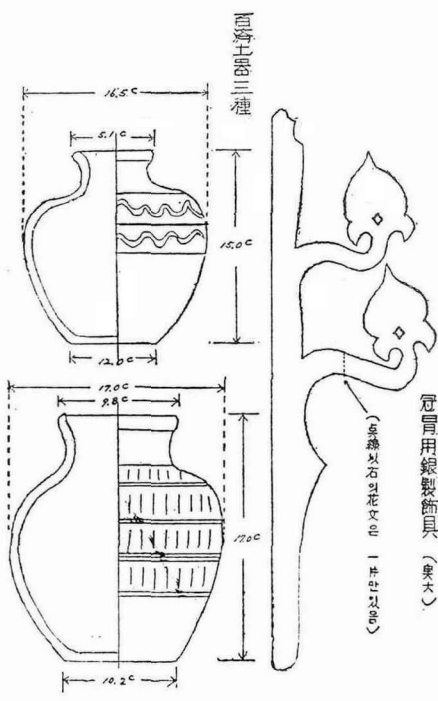
### 南原出土 百濟飾冠具

洪 思 俊

全北大學校博物館所藏의 百濟時代 遺物에 土器와 伴出된 銀製飾冠具가 있는데 이 飾冠具는 扶餘郡場岩面上黃里出土 그 것과 類似하다。

出土地는 一九六三年四月頃 南原郡二白面尺門里(자골) 金在千氏가 同里 自己所有地를 開墾하다가 나온 것이라 하며 이 遺物들이 出土한 附

第九卷 第一號 通卷九十號



近에는 古墳이 散在할 뿐만 아니라 古墳北 一 km (南原의 蓼川左岸) 地點에 是 百濟時代로 推定되는 城址가 있다고 한다。百濟遺物이 出土된 古墳 內部를 살펴보면 壙內長 約 三 m 幅 約 一·五 m 高 約 一·二 m 比較的 큰 古墳임을 알겠으며 天井蓋石만은 自然板石 數枚로 되었으나 壙 內部는 雜石으로 構築되었고 壙底에 棺臺는 亦是 雜石으로 같았다고 한다。墳墓의 位置는 南原邑에서 三 km 地點인데 墓方向은 東座西向하여서 南原邑을 向한 것이라 한다。

이 遺品의 銀製飾冠具는 壙의 東上中央에 位置하였고 土器三點은 그 左隅에 있었다고 한다。棺釘(三點)으로 볼 수 있는 그 形狀은 圓形鐵製板(徑五·五 cm)中央에 環狀고리를 갖 아서 棺木에 휘어박고 그 兩端을 棺 內에서 左右로 棺木에 꼬부린 鐵釘임을 알겠는데 鐵製圓板과 꼬부린 間隔이 三·六 cm 木棺厚가 짐작된다。이 古墳에서 以上 遺物을 收拾할 뿐 餘他것을 發見치 못하였다 하는데 壙 內에는 이미 盜掘하였던 痕跡이 있었

